

□ 同 행사에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·운영의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음

- ①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, 학계,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「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」에 대해 발표 [별첨 3]

※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절차·일정은 "credb.kcredit.or.kr"을 통해 안내(6.4일)

- ②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·결합 등을 위한 「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」, 「데이터 전문기관」의 구축·운영 방안과 함께,

-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(MyData)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「데이터 표준 API 구축」에 대해서도 발표[별첨 4]

※ (참고) 「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」 구축·운영 일정

- [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] 신용정보원에서 (i) 일반신용 DB 서비스는 6.4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며,
 - (ii) 교육용 DB 금년 하반기 중, (iii) 보험신용·기업신용 DB 금년 말 까지, (iv) 맞춤형 DB 서비스 '20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
- [데이터 거래소]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년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 오픈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, '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본격 실시
- [데이터 전문기관]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 시행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고,
 -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결합·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

□ 발표 이후,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인프라 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,

- 금융권(현대카드, 보험개발원), ICT 등 일반기업(네이버, SKT), 핀테크(레이니스트, 마인즈&컴퍼니), 학계(최경진 가천대 교수) 등에서 참여하여 패넬토론을 진행하였음

※ (참고) 구체적인 패넬토론 내용은 추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별도 공개

□ 정부는 「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」를 착실히 구축해 나감으로써
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,

- 금융권뿐만 아니라, 창업·핀테크 기업, 유통·통신 등 일반기업,
학계, 일반 연구자 분들까지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
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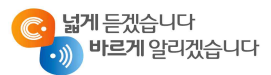
□ 이와 함께, 「신용정보법」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
에서 논의·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
- ※ 별첨 1.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(금융위원회)
2.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
 3. 「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」 발표자료 (신용정보원)
 4. 「금융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」 발표자료 (금융보안원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